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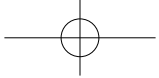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김선희 시집

도서출판 숨쉬는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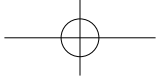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살며 지내온 길이  
할미꽃처럼 사라져 가며  
이루어가지 못한 것들을  
볼 때  
시들어 가는 잡초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놓인다

하루 가는 시간에  
꽃씨 하나 뿌리듯  
정성하나 드리며  
쌓아온 땅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되어 자  
라길  
소망들을 심는다



날마다 새롭게

김선희



# 날마다 새롭게

출간일 2017년 6월 20일

지은이 김 선 희

출판사 도서출판 숨쉬는 행복

IS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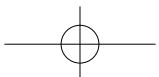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판매가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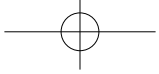
주 소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902동 616호(하계동)

[blog.naver.com/2051426](http://blog.naver.com/2051426)

© 김선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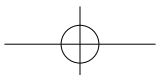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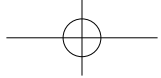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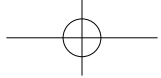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차례

꽃 길이 되어 주길.....	10
소망 심기.....	11
청보리 밭.....	12
마음의 그릇.....	13
날마다 새롭게.....	14
초여름.....	16
빛이 있어 좋다.....	18
어울림.....	19
가시 선인장.....	20
달밤 가득히.....	21
인정 키우기.....	22
인간 향기.....	23
삶의 약.....	24
대나무처럼.....	25
좋은 것들이 주는 마음.....	26
살아가는 길.....	27
풀꽃처럼 살자.....	28
선택.....	29
철쭉꽃 필 때.....	30
봄바람이 날리는 세월.....	31
가장 낮은 두려움.....	32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하여라.....	33
청정한 마음으로.....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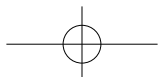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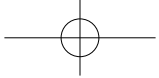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조팝나무 꽃.....	35
비움.....	36
장미의 인사.....	37
고운 정성들이 모여.....	38
마음이 모인 들판.....	40
쌓여진 열매들.....	41
겸손.....	42
날마다.....	43
오늘을 사는 이유.....	44
살아야 하는 삶.....	45
쉼터.....	46
나의 나 된 것들.....	47
숨 실 때마다.....	48
앵두.....	49
새 희망.....	50
절레꽃 향기.....	51
가끔은 거울 속의 나를 보아야지.....	52
잃지 말아야 할 것들.....	53
여름 빛 비.....	54
관계.....	55
시간이 만들어낸 깊음.....	56
내 삶은 나의 것.....	57
습관이 무너질 때.....	58
희망 하나 남아 있다.....	60
달맞이 꽃들의 모임.....	61
창조.....	62
새로움.....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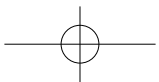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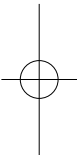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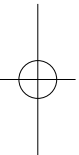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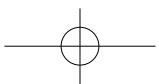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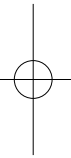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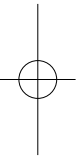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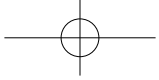
마음이 모이면.....	64
나팔꽃이 웃는 아침.....	65
자신이 가려는 길 위에서.....	66
인생의 기초 배움의 기초.....	67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위해.....	68
버려야 할 것들.....	69
오래 묵은 장맛처럼.....	70
작은 꽃들의 미소.....	72
험한 세상.....	73
마음 바라기.....	74
이파리 사연들.....	75
거짓은 아니다.....	76
스담 스담.....	77
마음의 호수 그 안.....	78
뿌리까지 썩은 나무.....	80
작은 반짝임.....	81
욕심 많은 다람쥐.....	83
장미꽃처럼.....	84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길.....	85
고운 잎.....	86
새로움으로 설레임으로.....	87
애쓰는 마음.....	88
지키는 마음.....	89
새로운 길.....	90
빛이여.....	91
소녀의 꿈 소녀의 마음으로.....	92
꽃들의 말.....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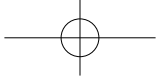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비 갠 하늘처럼 맑아라..... 95  
 물질을 버려라..... 96  
 여름 땀별..... 97  
 좋은 말이 좋은 말이기를.....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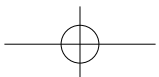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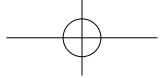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프롤로그

날마다 소망하나 심으며 새롭게 가는 길  
파릇 파릇한 새싹이 자라듯  
물도 주고 사랑도 주어  
고운 마음 담았습니다.

가는 길마다 꽃길 되어주길  
멈추지 않고 가야할길을 다독이며  
인생을 담았습니다.

푸짐하게 푸어 담을 마음의 그릇에  
소망하나 날마다 새롭게  
담아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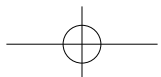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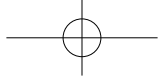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꽃 길이 되어 주길

가는 길마다 꽃 길이구나  
생명이 있어 자라는 곳엔  
멈추지 않는 하루처럼  
다독이며 피어낸 꽃 길이구나

생명이 끝나야  
가는 길도 멈출 텐데  
어지러운 일상에서도  
인생길을 찾아서 가는 길  
우연히 주어져도  
자신이 가는 인생길은  
찾아서 가는 길

가는 길마다 꽃 길이 되어주길  
멈추지 않는 하루처럼  
다독이며  
꽃 길이 되어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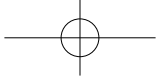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소망 심기

살며 지내온 길이  
할미꽃처럼 사라져 가며  
이루어가지 못한 것들을 볼 때  
시들어 가는 잡초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놓인다

하루 가는 시간에  
꽃씨 하나 뿌리듯  
정성하나 드리며  
쌓아온 땅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되어 자라길  
소망들을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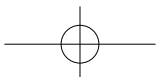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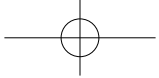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청보리 밭

텅 빈 방의 한가함처럼  
창문 틈으로  
청보리 그득한 들을 본다

마음으로 바람을 막으며  
흔들리는 청보리를 본다

푸르고 짙은 잎새 사이  
알알이 묶여진 마음  
그 마음으로  
풍파들을 막으며  
바람을 막으며  
시들어 가는 걱정근심을  
날려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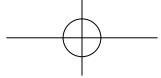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마음의 그릇

태어나면서 얻은 밥그릇 하나  
커가면서 쌓이는  
지식과 지혜를  
얻어진 것들  
잃은 것들이 모여  
마음 가득한 그릇 하나  
밥상에 놓는다

푸짐하게 푸어 담을  
깊음의 마음  
듬뿍 담겨지길  
마음의 그릇 하나  
인생길 위에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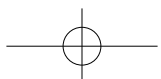
## 날마다 새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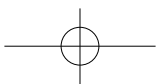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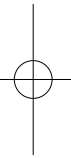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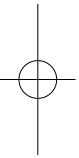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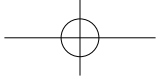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벚꽃 바다에  
꽃잎 날리는  
햇살 고운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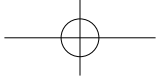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마음에 불만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귀함이 모여든다

날마다 새롭게  
새 희망으로 맞이하는 아침  
힘찬 마음들이 모여  
꽃잎이 되고  
그 하루가 꽃씨 되어 날린다

고와라 이 계절  
고와라 이 마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귀함들이 모여들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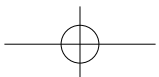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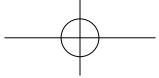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초여름

고운 잎 가져와  
나무에 달아준 이  
힘겨움에  
희망을 매달아준 이  
고마운 계절이  
따뜻한 정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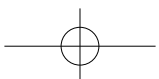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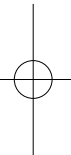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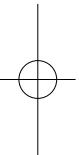
고운 것만 보라고  
천지에 푸르름으로  
연한 마음으로  
선물해준 이  
마음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머물러 주니  
따뜻한 정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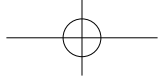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연 푸른 바다에 머물 듯  
초여름의 고움으로  
오늘도 새로운 날





어질게 살아내게  
구부러진 말에서 놓여나  
귀하게 보낸 푸르른 나뭇잎처럼  
따뜻한 정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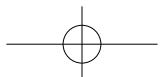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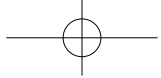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빛이 있어 좋다

달이 비추어 어둠과 싸우듯  
날마다 사소한 일들과  
부딪히는 삶

별이 비추어 어두움을 이기듯  
속상한 일상들과  
부딪히는 삶

빛이 있어  
빛이 되어  
밝아지는 삶  
그 속에선  
꿈도 자라고  
봄의 새싹들도 자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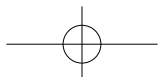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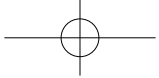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어울림

꽃밭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떠는 전경이  
봄바람 풍경이라면  
행복하다네

꽃밭에 모여 앉아  
술잔 위에 꽃잎 띄워  
산 꽃 피게 하는 만남  
봄바람 풍경이라면  
행복하다네

모여드는 꽃들과  
모여드는 꽃 바람에  
몸을 싣고 싶은 마음  
행복의 마음이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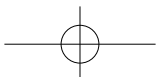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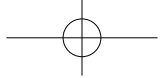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가시 선인장

이기심 발동시키는  
말들에게  
분노의 샷을 내민  
가시 선인장

사막처럼 타다 마른  
앞새에서  
꽃이 핀다

뜨거운 열사의 호흡 속에서도  
피어낸 강인한 생명력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꽃을 피워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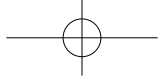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달밤 가득히

달밤 가득  
목련 꽃 피고

달밤 가득  
대나무 잎 날리니

곧게 솟은 마음 자락  
늘어지려는 잎새 세워  
오늘이라는 하루에  
꿈 자루 담아  
달밤 가득  
목련 꽃도 피우고  
대나무도 키워  
온 세상 천지 밝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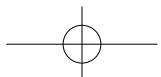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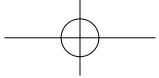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인정 키우기

무더진 마음에  
한 가닥 희망을 키우게  
때문은 먼지를  
닦아 내 보련다

봄바람 시원해서 좋으나  
먼지가 가득한 하늘  
마음에 쌓여진 것들  
닦아 내서  
인정만큼도 키워 보련다

무더진 마음에  
민들레 꽃씨 날아  
인정만큼은 뿌리내려  
때문은 먼지를  
닦아 내 보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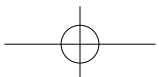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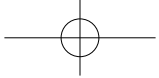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인간 향기

꽃 속에 취하듯  
인간 향기에 취해  
살아 가고픈 마음

꽃이 피었는데  
향기는 사라지고  
한여름 늘어진 꽃잎처럼  
마음이 짓눌리는 인생  
극복하고 극복해서  
꽃 속에 숨어  
작은 향 맡으며  
사르려는 마음

다잡고 다잡아서  
일으켜 세운 기운  
소담히 쌓아  
꽃 속에 취하듯  
꽃 향기에 취해  
살아 내고픈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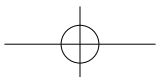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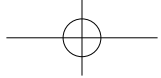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삶의 약

가끔은 침묵이 약이 되고  
가끔은 수다가 약이 된다

오지랖 넓은 세상 인심에  
남몰래 하는 인심을 더해서  
중용의 마음 지켜내기  
힘들어지면

가끔은 침묵이 약이 되고  
가끔은 수다가 약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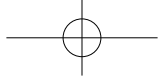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대나무처럼

대나무 속처럼 텅 빈 마음으로  
하루가 가는 것은  
아쉬움이지만  
그 속을 닦으며 비워가는 마음은  
세찬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준다

있음으로  
만남으로  
이어짐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바른 모습을 지키며  
모진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살아가길  
인생에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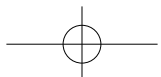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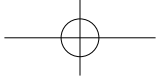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좋은 것들이 주는 마음

물보라 치는 분수 앞에서  
날리는 무지개 색이  
삶이라면  
얼마나 찬란하겠는가

꽃 향기에 묻혀  
향기 날리는 삶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깊은 삶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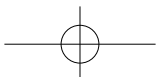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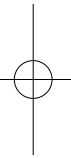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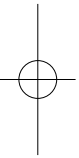
사슴 눈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이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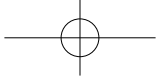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살아가는 길

살아가는 길도 많다 싶다  
대로길 앞에서는  
마음도 커지고  
오솔길 앞에서는  
마음이 정다워지고  
둘레길 앞에서는  
숨겨진 길 찾아가듯  
신비로워지니  
살아가는 길  
무한하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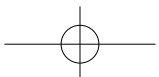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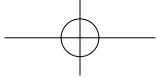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풀꽃처럼 살자

풀꽃들 앞에서  
피고 지는 삶 같아  
서글퍼지는 날

다시 찾아 드는 마음 있어  
위로를 받는다

피었다 지고 마는  
풀꽃이 아니라  
힘차게 자라나는  
풀꽃이 되어  
새롭게 다가오는 삶으로  
풀꽃처럼 피고 지며  
살아야겠다





##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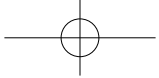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날마다 눈을 뜨면  
선택이라는 과제가 주어지는 듯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선택 안에서 하루를  
과오 없이 지내려 한다

잘못된 선택이 주어지면  
힘겨워지는 것들

잘된 선택이 주어지면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들

날마다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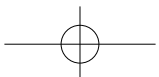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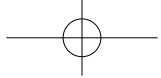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철쭉꽃 필 때

철쭉꽃 필 무렵  
공원 뜰 안에는  
활짝 웃는 웃음소리  
요란하다

통통하게 살찐 참새떼  
소나무 그늘에 모여 앉아  
깔깔거리며 웃는 웃음소리  
요란하다

피고지고 흐드러진  
철쭉들 붉은 잎들에게  
오늘 열정을 모아 담아  
함께 피고지고 가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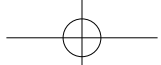


## 봄바람이 날리는 세월

솔가지에 목 축여  
취하여 본 봄에게  
지나쳐 가는 계절로 남기기엔  
아쉬워 소리친다

솔가지 향 바람에 실어  
봄 언덕에 모여든 무리들에  
불모지에서 피어낸 마음  
울곧게 자라라고 소리친다

아쉬웠던 지난 세월 지나듯  
봄바람에 날리는 세월  
모자람도 더함도 없이  
울곧게 가라고 소리친다



## 가장 낮은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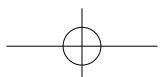
가장 낮은 마음일 때  
두려움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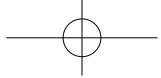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힘들고 지친 상황에도  
악이 바치듯 살아지는데

가장 낮은 마음에 이르면  
두려움만 남는다

찌끄러기 같은 인생에  
가장 낮은 마음 주어  
한 바구니 모이면 그 또한  
살아지는 날이 되듯  
두려움은 이겨내게 된다

희망 한 가득 바구니에 싣고  
두려움 짓밟아  
희망 되게 해 보자고  
힘차게 낮은 마음  
높게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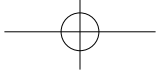


##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하여라

아침 햇살이 눈부셔 눈을 뜨면  
창가에 이쁜 화분들  
미소 지으며 반기는 모습  
봄이라서 행복하여라

꽃들 봉오리 피우고  
잔잔히 고개든 풀잎 사이에서  
전해오는 마음씨  
고와서 행복하여라

한여름 깊은 잠에서 깨는  
매미소리 그리워지는 초여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들로  
행복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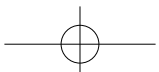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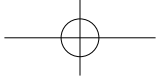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청정한 마음으로

천지에 사막모래 같은 것이 날려  
햇살이 먹이 감이 되는구나

구름도 사라지고  
하늘의 맑음도 감추는구나

비바람 몰려와  
먼지를 씻어내듯  
마음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었으면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정한 마음  
정으로 쌓여진 마음으로  
키우듯 티끌도 씻어내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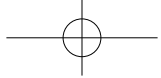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조팝나무 꽃

팝콘나무가 자라듯  
사람들이 모여든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모여든 공간엔  
기쁨과 상처들이  
팝콘처럼 튀겨지듯  
조팝나무 앞에 묻어난다

하얀 좁쌀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을 모여들게 한다

날마다 좋은 마음으로 자라길  
조팝나무 꽃잎에게  
얘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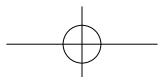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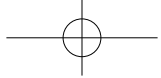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비움

가벼이 몰아치는 바람도 모이면  
태풍이 되고  
프르름도 모이면  
질음을 형성하듯

배움에도 욕심이 모이고  
금전에도 욕심을 더하니  
마음 안이 그득하여  
견지를 못하네

가끔은 걸러내는 비움이 있어야  
가끔은 빈 공간 한 칸쯤 남겨야  
가볍게 걸어 갈 수 있으니 좋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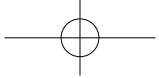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장미의 인사

해마다 찾아오는  
5월 장미의 인사는  
감사를 전한다

마음 깊은 곳까지  
날려오는 짙은 향기는  
나도 장미처럼 이쁘게  
좋은 향기 전하는 존재로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해마다 찾아 든  
장미의 마음으로  
오늘도 지내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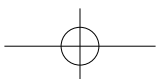
## 고운 정성들이 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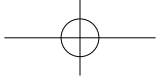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작은 것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곱게 변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길

악하고 모진 것들이  
검은 머리를  
파뿌리처럼 희게 만드니  
신경 쓸 일  
마음 상하는 일들이  
벗겨지질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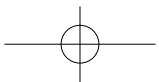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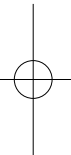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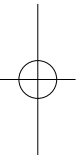
상한 마음의 끝에  
염색을 하고  
화장을 해서  
곱게 변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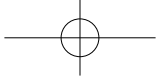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작은 성장들이  
고운 모습으로 자라는  
정성들인 것들이





무력무력 자라라는 마음  
한 권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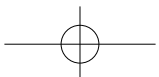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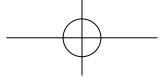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마음이 모인 들판

마음이 모여들면 얻어지는 것들  
관심들이 만들어낸  
많은 만남들

그냥 흘려 보내지 말아야 하는  
작은 말들이  
수많은 말들보다는  
마음 밭에 새싹을 키운다

무럭 무럭 자라서 키운  
넓은 들판의 풀꽃들  
강하고 담대하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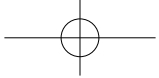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쌓여진 열매들

거짓된 삶 안에서  
놓여 나갈 바라는 마음

심는 대로 거두는 인내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

거짓이 없어지면서  
찾아가지는 작은 즐거움  
그 열매들이 모여  
그득 쌓인 마음의 풍성함

거짓도 삶 안에서  
살아지는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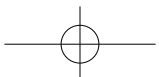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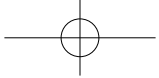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겸손

자연을 섬기는 인간에게  
조물주는 한없이 큰 존재

미약한 마음 심듯  
거대한 힘에  
작은 마음으로 모여  
하나 하나 쌓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작은 선물들  
작은 미물들

자연을 섬기는 인간에게  
조물주의 겸손을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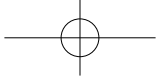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날마다

잠든 모습이 평화로운 날  
아침햇살이 참으로 반가워진다

잠든 모습이 이그러진 날  
흐린 아침이 비를 내린다

밝고 맑은 평화로움이  
선물하는 하루의 아침  
평안이 깃드는 햇살이  
인사를 하길  
날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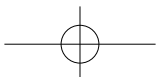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 오늘을 사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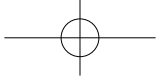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부족하면 채워나가면 되지  
풍족하니 무의미 하구나

부족하여서 채워지는 것들  
만족함이 없어서 채워가는 것들

한걸음을 떼게 하는  
용기가 되는구나

풍족이 없어  
채워져 가는 의미 있는 것들  
오늘을 사는 이유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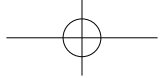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살아야 하는 삶

힘겨워도 살아가야 하고  
지겨워도 살아가야 하고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해도  
살아가야 하는 삶

삶이 주어지기에  
가야 하는 길  
될 수 없는 그 위에서

오늘도 가야만 하는 길  
이왕이면 힘차게 가야겠지  
살아야 하는 삶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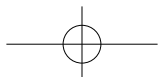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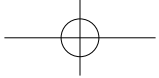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쉼터

천지가 숲이 되는 사이  
마음에도 짙은 숲이  
만들어졌다

작은 오솔길을 밟으며  
한걸음씩 옮겨 놓은 곳  
어느새 숲이 되어  
울창하다

천지가 숲이 되어  
그늘이 되어 준  
쉼터  
마음 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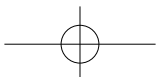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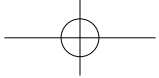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나의 나 된 것들

누군가에게 저울질 당할 때마다  
마른 잎 한 장 떨구어 버린다

속부터 차오르는 여린 잎새  
깊은 호흡으로 짙은 나뭇잎 맺고  
풍성한 나무에게로  
인도 한다

가득한 숲이 된 공간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을  
나뭇잎에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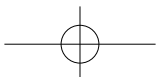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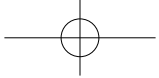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숨 쉴 때마다

숨 쉴 때마다  
바람 한줌 삼킨다

햇살 머금은 바람은  
달콤한 알사탕 같고  
먼지 머금은 바람은  
미움 한 움큼 같다

숨 쉴 때마다  
햇살만 삼키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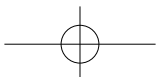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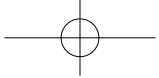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앵두

가슴 가득 뭉친 것들이  
풀어져 버리듯  
알알이 맺힌 열매들이  
붉게 붉게 자란다

조그마한 알들이  
똑똑 떨어지는 날  
입술 속에 맺힌 알알이  
가슴속에 퍼진다

고운 것을 고운 알들을  
미운 것은 미운 알들을  
각자의 뭉으로  
붉게 붉게 떨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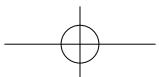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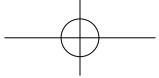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새 희망

우수수 떨어져간  
꽃송이의 아픔을 보며  
다시 태어난 희망들을  
주어 담으며

올해의 아픔  
오늘의 아픔들을  
묻는다

다시 태어날  
내 일의 꽃송이들을  
담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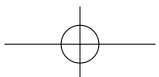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 짚레꽃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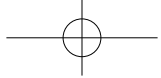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깊은 푸르름 속에  
여름을 부르는 노래

더움 속에 피어낸  
짚레꽃들의 향연

그 향기 가득 채워진  
춤사위  
함께 추워가며  
계절이 간다

깊은 여름 속으로  
햇살 타고 온 바람 따라  
짚레꽃 향기 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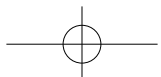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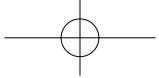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가끔은 거울 속의 나를 보아야지

가끔은 거울 속의 나를 보아야지  
눈빛 하나 살피고  
낯빛 하나 살피서  
바름이 없어야지  
고쳐 나가야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무는 까칠한 것들이  
모이면 눈빛 하나  
낯빛 하나 곱지 못하지

가끔은 들여다 볼  
거울 속의 나를 위해 비추는  
심장의 거울을 만들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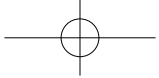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잃지 말아야 할 것들

옆에 있는 추함으로 인해  
고운 것을 놓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옆에 있는 무례함들로 인해  
예의가 사라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옆에 있는 이기심들 때문에  
정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옆에 있는 미련한 것들 때문에  
지혜로움을 잃지 않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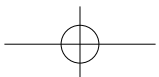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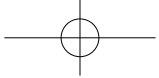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여름 빛 비

꽃 비가 내리는 봄이 가고  
빛 비가 내리는  
여름이 오면  
아스팔트가 뜨겁다

마음 안에 고움이 내리고  
마음 안에 열정이 내리는  
한 여름이 뜨거웠으면  
아스팔트 위 더운 열기처럼  
뜨거웠으면

한 해가 가는 길에 만나는  
여름 빛 비  
힘차게 내리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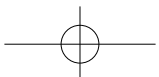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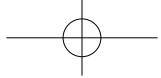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관계

봐 주려 해도  
무례함이 심해지면  
놓아 버리게 되는 것들  
관계

배려해 주려 해도  
마음의 빗장을 채우게 하는  
이기심들이 쌓이면  
놓아 버리게 되는  
관계

뉘여질 수 없는  
썩은 동아줄을 끊어 내듯  
놓아 버려야 하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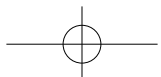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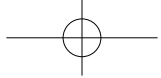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시간이 만들어낸 깊음

오랜 세월 한 길을 가는 인내는  
깊은 정을 남긴다

하고 싶은 것도 마음뿐이면  
사그러드는 것을  
하고 익히고 행한 것들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라도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이 든다  
소중해진다  
시간이 만들어낸 깊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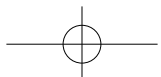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 내 삶은 나의 것

삶이 가다  
긴장이 풀리면  
삶의 노예가 된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자신도 모르는  
삶의 노예가 된다

삶의 주체로 걸어가는  
삶이 주어져 있기에  
가야 하는 길

바로 잡고 가야 하는  
삶의 주체로 걸어가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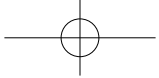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습관이 무너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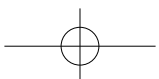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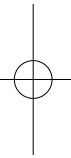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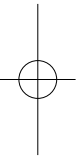
해오던 습관이 무너지면  
집중도 사라지고  
화냄만이 남는 듯  
화가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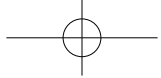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많이 들으니 귀가 말한다  
단으라고  
화나게 하는 말에 귀를  
마음이 평안 안에 있음을 알기에  
많이 들으니 못쓰겠다

습관이 무너지지 않게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게  
듣고 싶은 말에 듣는 귀가  
중요함으로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닫는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한 호흡 쉬고  
한번 참아 보고  
한번 지켜봐서  
화도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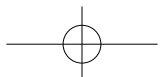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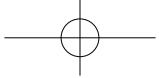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희망 하나 남아 있다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에게도  
조각이 남아 있으니  
희망 하나 남아 있다

컴컴한 동굴 속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  
빛이 있으니  
희망 하나 남아 있다

어둠 속에서 나올 때  
바라볼 수 있는 태양의 빛이  
얼마나 밝을지 알기에  
희망 하나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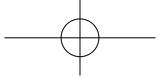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달맞이 꽃들의 모임

달맞이꽃 등근 달이  
흠에서도 떠오른다

곱게 곱게 등근 달이  
올망졸망 모여 앉아  
내 얘기를 하듯  
바라 본다

힘내어라  
여름이 가기 전에  
열심히 살아라  
이 계절이 지기 전에  
채워 나가라 달처럼  
달맞이 꽃들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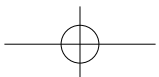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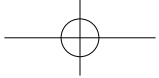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창조

지겨움의 반복은  
열정의 힘을 사그러들게 하고  
귀찮게 한다

지루한 것의 반복은  
사람을 늘어지게 하고  
지치게 한다

활력이 되는 것들은  
반복 없는 창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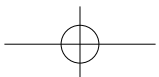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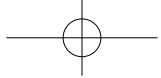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새로움

개미처럼 모인 곳에선  
개미밖에 보이지 않는다

같은 무리 같은 삶 안에  
새로운 것이 무디어지고  
같은 것 밖엔 보이지 않는다

개미의 무리에서 벗어나  
가끔은 봐야 할 것들  
새로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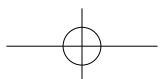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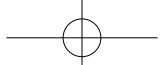
## 마음이 모이면

생각이 쌓이고 마음이 모이면  
행해지는 것들  
마음에서 풍성히 자라서  
행해지는 것들  
모아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힘은  
인내의 삶이지

가고자 하는 길에 간절함이 없으면  
의미조차 무의미해지는 것들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을 모아야겠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더욱 마음을 모아야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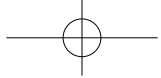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나팔꽃이 웃는 아침

장미가 시들어가는 시간은  
상처 받은 영혼이 시들어가는 시간

옆자리에 다소 꽃이 피어낸  
나팔꽃의 웃음  
아침의 미소  
고운 것과 어우러진 시간의 시들  
한 계절이 가는 순간  
순환의 것들이 머물지 못하듯  
인생줄기도 간다

가고 가고 또 가는 것들을  
붙잡을 수 없듯이  
장미도 시들어 간다  
상처 받은 모든 것들도 시들어간다  
그리고 나팔꽃이 웃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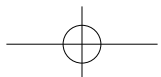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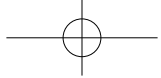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자신이 가려는 길 위에서

자신이 가려는 길 위의 이탈  
방향과 해맵이 길어지면  
쌓아 온 것들이 무너진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모든 것을 훌어 버린다

잠깐의 쉼 들이  
앞선 이를 만들고  
잠깐의 머무름이  
뒤쳐지게 하는 것들을 만든다

오늘 자신이 가려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이유이다





## 인생의 기초 배우의 기초

인생의 기초는  
어린 시절이 만들어진다

배우는 것들의 기초는  
시간이 머물고  
인내가 머물고  
세월이 머물고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음은  
인생의 깊이에서 알고  
배우는 깊이에서 알아간다

삶의 기초대로  
배운 기초대로  
살아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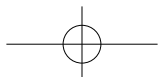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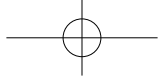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탁하게 하는 것은  
돌멩이 하나

잔잔히 뛰어 노는 강물 속  
물고기의 파문을 가져 오는 것은  
돌멩이 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삶을 흐드는 것이 아니라  
모난 것 하나  
돌멩이 하나가  
어지러운 강물을 만들고 있다

멀리 던져 버려야 할  
돌멩이 하나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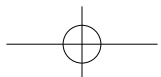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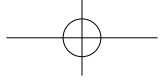
## 버려야 할 것들

살아가면서 지고 나누고  
가려 했던 것들이  
미련함으로 오고  
마음 상함으로 올 때는  
버려야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잡고 있고  
붙들고 있고  
지치면서 이어가는 끈에 매달리면  
스스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관계 속에서 깨달아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모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설렘으로 모아지는 것들  
담아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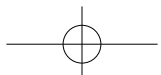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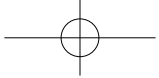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오래 묵은 장맛처럼

오래 묵은 것들이 좋은 것들만은 아니다  
오래 묵힌 된장은  
구수하고 마음까지 젓게 하는  
맛이지만  
오래 묵은 악인들은  
미련한 짓만 반복하나  
옆에 머무는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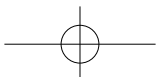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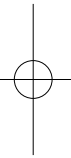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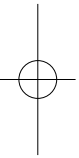
오래 묵은 만큼  
장맛만큼  
깊은 맛이 담긴 사람으로  
머물고 싶은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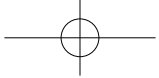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오래 묵혀 숙성된 나이 값만큼  
한 계절이 바뀌는 만큼  
깊은 정들이 넘치는 사람으로  
머물고 싶은 마음





오래된 맛의 여운이  
주는 깊은 맛이  
오래 묵힐수록 쌓여가는  
장독대의 장맛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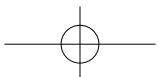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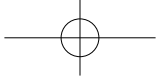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작은 꽃들의 미소

잎새 사이에  
작은 꽃들  
아기자기 하게  
눈을 찢다

잎새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고개 내민 꽃들이  
잔잔하여  
마음 안에 담긴다

붉은 열매 날리고  
꽃들을 피어내는  
자신 안의 노력들  
잎새가 가리워도  
그 안은 따뜻하다  
한 움큼의 정이  
듬뿍 자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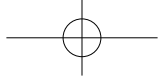
## 험한 세상

험한 세상이  
돌무덤을 만드는구나

선한 사람들이 묻히고  
악한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날뛰고  
모든 선을 값아 먹는구나

지켜야 할 것들  
지켜내야 할 것들이  
묻히고  
마음들이 태풍의 악처럼  
쫓는구나

험한 세상이  
돌무덤을 만드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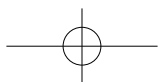
## 마음 바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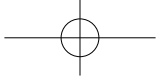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  
늘  
마음 바라기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늘  
마음 바라기

주어진 것이 잘 되도록  
늘  
마음 바라기

스치는 인연이  
좋은 만남들로 이어지기를  
늘  
마음 바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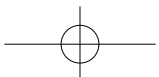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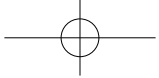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이파리 사연들

꽃꽂이 자란 나무에게도  
얽히고 설킨 가지들이  
영켜 붙어 있다

곧게 솟은 하늘을 향한 마음은  
간절함 같고  
휘어 늘어진 마음은  
땅의 마음 같다

울곧은 모습과  
흐트러진 모습  
인간에게는 나무처럼  
성장하는 힘이 있듯  
이파리들이 사연 하나씩  
매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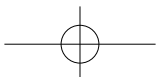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 거짓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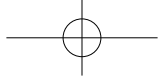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입과 눈이 진실인 듯 보이는  
꽃씨를 날리나  
그 속의 것이 썩었구나

석류 속 붉은 알알이  
검게 타 들어간 것처럼  
썩었구나

앞에서 웃고  
뒤에서 가증한 것이  
석류 알 속 붉은 알 알을  
먹기에도 씹쓸하게 하는구나

혜안을 가지고  
석류 알 속  
붉은 기운으로  
살아가야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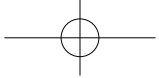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스담 스담

하루가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스담 스담

하루가 수고로운  
사람들을 위해  
스담 스담

끝일 줄 모르는 버거움에  
스스로를 담근  
사람들에게  
스담 스담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힘겨움 들을  
이겨내기 위해  
스담 스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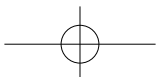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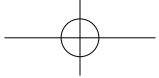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마음의 호수 그 안

아파했던 것들이  
무뎠지는 시간  
흘러가는 강물처럼  
잔잔함이 담긴  
마음의 호수  
그 안이 즐거움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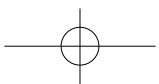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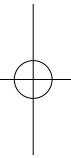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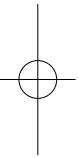
작은 물고기들이  
성장을 위해 띄어 놓고  
풀잎들이 나뭇잎 배 되어  
곤충들을 실어 나르고  
하늘 향해  
거울 비추듯  
마음까지 비추어 주니  
그 안이 기쁨이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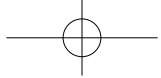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잠잠히 잠들 수 있는  
여름 밤 시원한 그늘이  
그림자 되어 주는





마음의 호수  
그 안에 십자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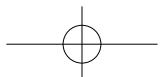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 뿌리까지 썩은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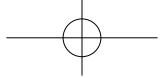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우매한 나무들이  
늘비하게 서 있다

작은 잎부터 뿌리까지  
썩어 들어가  
모든 잎이 마르는구나

볼 것도 없고  
초라해진 나무는  
빈 그늘만 남기고  
아무도 찾아 주지 않는다

뿌리까지 퍼져 버린  
흙 위엔  
작은 벌레들만  
살고자 애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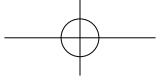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작은 반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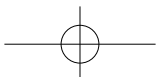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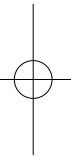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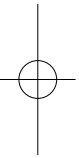
스치는 작은 미물까지도  
우습게 여기며  
밟고 지나다 보면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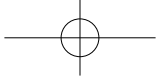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작은 마음을 흐트고  
부셔 버리는 마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대접을 하게 된다

작을수록  
힘이 없을수록  
바르고 곱게  
가꿔줘야 하거늘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그렇지 않다



흙 속에 머문  
작은 생명체에게서 받는  
반딧불이의 영혼이 필요하듯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반짝임에 필요하다





## 욕심 많은 다람쥐

양손에 도토리든  
욕심 많은 다람쥐  
입 속에도 한 볼 가득 채운  
욕심 많은 다람쥐

귀여운 것도  
욕심 앞엔  
지독히도 알미워라

양손의 것을 내려 놓고  
한 손의 것으로  
평화롭기를 바라며  
뛰어 노는 다람쥐와  
말동무 하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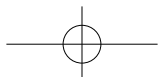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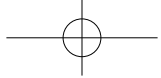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장미꽃처럼

장미의 마음처럼  
좋은 향기를 내는 삶들과  
만나며 살고 싶다

고운 색깔을 받으며  
화려하게 피어낸 만큼  
만남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다

고움을 고움으로 알고  
그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장미꽃처럼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 꽃잎처럼 좋은 향을 내며  
어울림이 복이 되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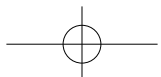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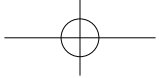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길

오래 참고 수고한 것들로  
고민하고  
화를 받으며  
얻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 놓는 마음이다

더 이상 나아가면서  
봐 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면  
남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이다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얻는 것이  
삶의 또 다른 시작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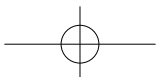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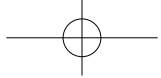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고운 앞

눈물이 이슬이 되어  
내리는 아침  
맑은 잎새들이  
친구가 되어  
눈 속에서 아른거린다

고운 꽃잎들이  
색감들이 눈 속에서  
무지개를 그리듯  
친구가 되어 준다

듣기 싫은 소리  
보기 싫은 모습들을  
검게 날리고  
고운 잎들이  
팔랑 팔랑  
내 친구가 되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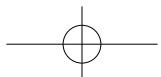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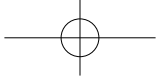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새로움으로 설레임으로

보기에 좋았던 것들이  
추해지며  
피다 저 버린  
꽃들처럼  
마음 아프게 한다

이어갈 인연도 없어지고  
동행할 마음도 살아지니  
보기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 흠으로 묻힌다  
마음에서 묻힌다

새로움으로  
설레임으로  
다가올  
다시 피어낼  
꽃들의 힘을 기다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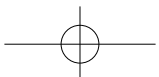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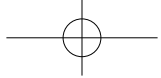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애쓰는 마음

배울 것이 없는 곳에서  
배울 것을 찾으려  
애써 본다

악의 꽃을 피운 곳에서  
선의 꽃을 찾으려  
애써 본다  
머물 곳이 조용한 숲이 되길  
소소한 일상이  
지루함이 아닌  
행복의 길이 되어 가게  
애써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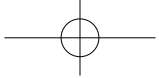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지키는 마음

이쁜 모습  
이쁘게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을  
지켜내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인내 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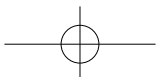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이쁜 것을 지키고  
내가 나를 지키는 마음  
소중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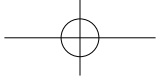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새로운 길

아는 것들이 악으로 달려갈 때  
멀어져 가는 인연들  
가시 받길  
그곳엔 돌무더기가 쌓이고  
거칠고 지친 낙엽들이  
쌓여 가는 길

팽이 잡아  
호미 잡아  
캐내고 다듬어서  
아는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인연으로 갈고 닦아  
바름의 길이 쌓이는  
날들로 만들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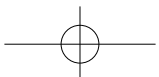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 빛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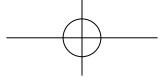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교만한 인연이  
고개를 쳐들면  
앞날이 깜깜하구나

과거가 현재를  
덮어 버리니  
미래가 깜깜하구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혀지니  
모두가 암흑이구나  
움틀 움틀  
공기 따라 세어 든  
한줄기 빛

빛이여  
현재를 밝혀 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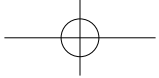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소녀의 꿈 소녀의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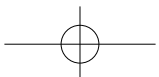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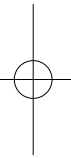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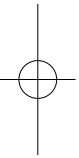
소녀들이 꿈꾸며  
소년들이 꿈꾸며  
뛰어 놀 자연이  
삶의 터전이 많아졌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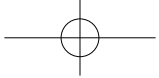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소녀들이 밝게 웃고  
소년들이 힘차게 걸어갈  
사회적 삶이 많아졌으면

늙은 것이 나이들이  
젊음을 방해하고  
지치게 하니  
무더져 가는  
젊은 날의 꿈들이  
날개도 달아보지 못하고  
묻혀간다



꿈꾸며 살아가는 세상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  
기회가 고루 고루 주어지는 세상  
이 땅이 예의 바르게  
이 땅이 올곧게 커가길  
소녀의 꿈으로  
소년의 마음으로  
빌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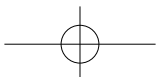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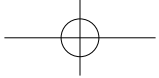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꽃들의 말

노랑 꽃들  
하얀 꽃들  
분홍 꽃들  
보라 꽃들  
용기 종기 모여 앉아  
할말들이 많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웃고 울고  
하루 종일 햇살아래  
그늘 아래서  
할말들이 많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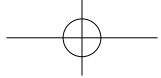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 비 갠 하늘처럼 맑아라

하늘 안개 그을려  
마음 밭에 앉으니  
화난 마음 뿌여지고  
맑음 무지개 피네

고운 색에 눈이 즐겁고  
고운 마음에 마음이 즐거워  
구름 따라 흘러가네

비 갠 하늘처럼  
맑아라  
비 갠 하늘처럼  
깨끗하여라



## 물질을 버려라

물질이 지옥이다

돈

집

물질이 인간을 악으로 만든다

돈

집

물질이 사람을 흠어 버린다

돈

집

물질이 모든 것을 악으로 만든다

돈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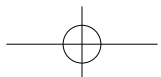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물질을 버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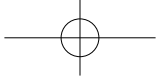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마음이 따뜻해진다

정이 쌓인다

예의가 바르게 된다

96





## 여름 땀별

한 여름 땀별

아스팔트를 덮은 뜨거움처럼

자신이 가꾸어 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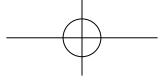
인생이 언제나 뜨겁기를

새 힘으로 일어나는 담대함처럼

언제나 강렬하기를

한여름 땀별처럼

힘이 되어 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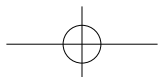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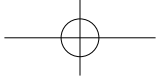
## 좋은 말이 좋은 말이기를

앞에서 좋은 말들  
앞에서 칭찬하는 말들  
달콤하다

속이 속이 아니고  
말이  
행동이  
사라지니  
결과는  
쌈바귀 한 움큼 씹은 듯 쓰다

뒤에서 무어라 수근수근  
뒤에서 가장한 것들  
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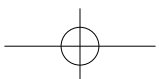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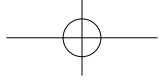


숨은 것이 나타날 때  
쓰고 매운 것들이  
마음의 인연을 끊어 낸다

단말과 쓴 말이  
공존 할 없듯이

좋은 말이 좋은 말이기를  
칭찬하는 말이 칭찬하는 말이기를  
고운 숲에서  
맑음 밝은 풀잎 따라 흐르고  
말이 되어주길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얻는 것이  
삶의 또 다른 시작이 된다

